

문 4. 다음 글을 현대 사회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할 때, 필자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4)

나무는 덕(德)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는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이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厚薄)과 불만족(不滿足)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떠 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 ① 자리의 좋고 나쁨 ② 대우의 좋고 나쁨
③ 능력의 있고 없음 ④ 지위의 높고 낮음

문 5. 다음 <보기>를 고려할 때, (가)와 (나)시조에 공통으로 함축된 정서로 알맞지 않은 것은?5)

<보기>

황진이가 서화담을 밤에 찾아갔는데 화담 서경덕이 뜰에 나와 노래 (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를 들은 황진이는 밖에서 노래 (나)를 불러 응답하였다고 전한다.

(가) ㅁ음이 어린 後(후) | 니 ㅎ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운산)에 어니 오리마는
지는 입 부는 ㅅ람에 ㅎ여 ㄱ가 ㅎ노라.

- 서경덕

(나) 내 언제 無信(무신)하야 님을 언제 속엿관디
月沈三更(월침삼경)에 온 뜻지 ㅅ혀 업다
秋風(추풍)에 지는 님 소리야 난들 어이 ㅎ리오

- 황진이

- ① 서로가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다.
② 오지 않는 입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③ 만남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
④ 예상과 달리 초래된 상황에서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문 6. 다음 글의 표현 방식이 아닌 것은?6)

요즈음 대학에서 교과서로 상정되는 ‘공식적 지식 체계’들은 그리 큰 존중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지식이 지닌 혁명적 속성을 생각하면, 설명이 힘든 현상은 아니다. 공식적 지식 체계가 지니게 되는 편향과 억압을 생각하면,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의 모습을 생각하면, 공감이가는 대목도 있다.

공식적 지식 체계를 배우는 일은 그래도 중요하다. 배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야 새삼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떤 사회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자리잡은 지식 체계를 배우는 일이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런 지식 체계에 비길 만큼 체계적이고

충분한 대체적 지식 체계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런 지식 체계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므로, 그것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사회 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함께 적용된다.

위에서 든 것들보다는 작지만, 공식적 지식 체계를 배워야 할 까닭은 또 하나 있다. 바로 재발견을 피하는 일이다. 비록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결코 작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일이다. 남이 알아낸 것을 다시 알아내는 일은 모두가 겪는 바다. 하긴 삶 자체의 중요한 부분이 재발견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얘기들을 우리보다 먼저 말해버린 사람들은 없어져라.”라는 일리어스 도네이터스의 말은 천 몇 백 년 뒤에도 우리 가슴에 얼마나 저릿하게 닿는가, 그 말의 옳음으로,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란 사실로 그런 재발견은 물론 당사자와 사회에 함께 낭비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한다. 어떤 이론도 아주 사그라지지 않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분야에선 그런 위험이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 훨씬 크므로(경제학들과 정치 철학자들의 영향에 대한 케인즈의 유명한 관찰 - ‘스스로를 모든 지적 영향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여기는 실무가들은, 흔히 틀렸음이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은 바로 이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배우는 이들은 더욱 마음을 써야 한다.

재발견을 피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발견한 것들이 무엇이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재발견의 위험을 줄이는 일은 실제로는 지식이 뺏어나가는 맨 앞쪽으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찾는 일이다. 말을 바꾸면, 공식적 지식 체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에 교과서의 효능이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바로 그것이 공식 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우리 사회에서 교과서로 상정되는 지식 체계의 권위가 아주 낮아졌지만, 그리고 그런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교과서를 홀대하는 사람들은 교과서가 어쩔 수 없이 지니게 되는 편향이나 억압의 위험보다 훨씬 큰 재발견의 위험을 안는다. 그것도 케인즈가 가리킨 바처럼, 낡은 이론들을 재발견하는 위험을. 사람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지식의 터미에 조금이라도 더할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학문의 모습을 하든 예술의 모습을 하든, 자신의 재능을 재발견에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 써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과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 ① 상반되는 견해를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 효율적인 설득 방식을 하고 있다.
② 공식적인 지식 체계가 지니는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③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서 강조하고 있다.
④ 묘사와 비유를 주로 사용하여 자기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문 7. 글쓴이 주장의 근거로 알맞은 것은?7)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이에 연계된 사회문화 변화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흔한 물건들 그리고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회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휴대전화, 컴퓨터, 애플 3(MP3), 디지털 카메라, 전자오락, 위성방송, 감시카메라, 인터넷 실명제, 유전자 검사, 배아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식품, 환경호르몬, 수돗물 불소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등...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인의 삶을 구성하는 것 중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이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 제도가 과연 과학기술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는 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오히려 과학기술 사회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과 제도에서 '두 문화', 곧 과학문화와 인문문화의 괴리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사회의 다른 요소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며 인문·사회과학자와 일반인은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는 널리 퍼져 있다. 또 과학기술자 역시 자신들의 분야가 사회·문화적 요소들로부터 초연한 어떤 세계에 속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두 문화'의 괴리 현상이 심하면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의 새로운 결합으로 말미암은 복잡한 현상과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복합적 지식과 새로운 태도는 생겨날 수가 없다. 과학기술자와 비과학기술자는 서로 다른 지식의 세계에 갇혀 상호 소통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소통할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스노가 지적했듯이 '두 문화'는 이미 서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것이 심각한 원인은 '문과-이과'로 구분된 교육체계에 있다고 과학사학자 김영식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구분은 대학으로 이어져 우리 학문사회에 견고하고 끈질긴 장벽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문과에 속한 사람은 이과의 분야들이 인간의 가치나 감정, 상상력과는 상관없이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것이어서 이과의 사람들 역시 맹목적이고 정확성만 따질 뿐 인간과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이과에 속한 사람들은 문과의 분야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잡다하고 부정확한 것이어서 문과의 사람들 역시 정확히 아는 것 없이 말장난을 통해 얼버무리거나 하는 부류로 여기곤 한다. 한마디로 문과든 이과든 한 쪽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쪽의 활동이나 종사자들의 성격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이러한 무지는 결국 상대적으로 편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문과-이과'로 나뉘어 이런 무지와 편견을 재생산하는 '두 문화'체제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다. 문과와 이과 사이의 장벽은 학문 분야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제도적 장벽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김 교수의 지적이 맞다면, 과학기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제 문과-이과의 구분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체계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① 글쓴이가 직접 관찰한 사실
- ② 글쓴이가 권위를 인정한 사람의 견해
- ③ 설문 조사의 통계적 분석 결과
- ④ 폐해를 실감하는 사람들의 증언

문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구조가 다른 하나는?8)

- ① 너무 바빠서 요즘 쉴 새도 없다.
- ② 우리 부서에 새로 입사한 사원이야.
- ③ 사람들 새로 친구가 빨리 숨어 버렸다.
- ④ 좁은 새로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문 9. 관공서 언어 사용에서 높임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9)

- ① 1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여기 오시는 한분 한분들께서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찾아 가십시오.
- ③ 방문자 여러분께 다양한 교육 정보와 소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④ 앞으로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 1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

<보기>

ㄱ. 인간은 자연에 복종도 하고, 지배도 하며 살아간다.
 ㄴ. 이것은 아버지의 초상화이다.
 ㄷ. 가급적 일 대 일 대응은 피하자.

- ① 'ㄱ-ㄷ'은 중의성을 가진 문장이다.
- ② 'ㄱ'은 '인간은 자연에 복종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며 살아간다.'로 고쳐야 한다.
- ③ 'ㄴ'의 '아버지의'는 '아버지를 그린', '아버지가 그린', '아버지 소유의'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ㄷ'의 '일 대 일'은 '일대일'로 붙여 써야 한다.

문 11.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만 모은 것은?¹¹⁾

<보기>

- (ㄱ) 어디를 가던지 자기 하기 나름이다.
(ㄴ) 착한 사람이 돼라.
(ㄷ) 지난번에 샀던 옷하고는 색상이 틀리다.

- ① $\neg, \perp$
- ② $\neg, \sqsubset$
- ③ $\perp, \sqsubset$
- ④ $\neg, \perp, \sqsubset$

문 12. 띄어쓰기 규정에 맞는 문장을 묶은 것은?12)

- (가) 합병으로 새로이 선임된 임원 상호 간의 관계가 법 제 21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 (나) 중국과 러시아의 청소년을 우리시로 초청하여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및 화합을 꾀하고자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합니다.
- (다) 저는 4년 임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인성과 재능을 갖춘 새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라) 그외의 영문 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마)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3·4·5월을 개근하고 퇴사한다면 3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 (바) 휴가 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어야 한다.

-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다), (마)
④ (라), (바)

문 13. 밑줄 친 말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끼리 묶은 것은?¹³⁾

이 건물은 농암 이현보(1467~1555)의 별당건물이다. 조선 중종 7년(1512)에 부친과 숙부 등을 중심으로 ㉠구노회(九老會)를 만들고 ㉡경노당(敬老堂)을 지어 늙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당호(堂號)는 부친이 늙어감을 아쉬워하여 ㉠하루하루를 아낀다는 뜻에서 애일당이라 하였다. 1975년 옮기기 전에 애일당은 분강(汾江)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동암집(壘巖集)』이 있다.)과 의촌이 ㉡내려다 보이는 농암이라는 절벽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 ‘농암선생정대구장(壘巖先生亭臺舊庄)’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북서쪽은 산이고 앞면은 절벽이어서 남쪽에 문을 내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㉔뒷쪽** 양옆에 **㉕1칸**씩 온돌방을 두고 **앞쪽** 4칸을 대청으로 꾸몄다. 1975년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도산면 분천리로 옮겼다가 2005년 이 곳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 ① ㄱ, ㅈ ② ㄴ, ㄷ
- ③ ㅊ, ㅋ ④ ㅌ, ㅎ

문 14. 다음 중 유사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¹⁴⁾

- ① 그 사람의 행동은 겉잡을 수가 없다.
차에 실려 있는 짐의 무게는 겉잡아 1톤은 돼 보였다.
- ② 등산로에 철봉을 박아 밧줄을 늘려 놓았지만 오르기가 힘들었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면 체중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 ③ 이제 구름이 많이 거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냉수를 들이키자 마루를 건혀 부엌방으로 들어갔다.
- ④ 가는 도중에 비가 내려 우산을 받치고 걸어갔다.
마을 사람이 소에게 받혀서 끔찍을 못한다.

문 15. 사이시옷의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15)

- ① 최긋값, 번짓수, 꼭짓점
② 마긋간, 장밋빛, 머릿수
③ 전셋집, 수돗세, 소줏집
④ 방앗간, 컷병, 고양잇과

문 16. 다음 중 밑줄 친 외래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16)

- ①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샤스민**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 ② 이번에 보내주신 갈비 **셋트** 정말 맛있네요.
- ③ 모바일로 전송되는 영상 문화 **콘텐츠**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 ④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17.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로마자로 맞게 된 것은?17)

ᄃ	ᄅ	ᄇ	ᄉ	ᄋ	ᄍ	ᄏ	ᄒ	ᄔ	ᄖ
a		o	u		i		e	oe	

- ① eo, eu, ae, wi ② eu, eo, u, wi
③ eo, u, ae, wi ④ eo, eu, ae, ui

문 18. 사자성어(四子成語)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18)

- ① 그 사람은 철치부심의 한을 품었다.
- ② 두 영웅은 건곤일척의 혈투를 벌였다.
- ③ 그 수령은 가림주기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 ④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

문 19. 밑줄 친 말을 바르게 다듬은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19)

- 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운전 습관인 에코드라이브 (-메아리운전)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 ② 스미싱 (-문자결제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③ 사용자의 기호와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핫플레이스 (-인기명소)를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④ 회사 대표는 로드매니저 (-수행매니저)를 포함해서 30년 가까이 연예인을 발굴하고 연예 활동을 기획했다.

문 20. 다음 중,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밑줄 친 호
칭어의 기능이 다른 하나는? (20)

- ①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길 좀 물어 볼게요.
- ② 할아버지, 누구 찾으러 오셨나요?
- ③ 아저씨,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오실 거죠?
- ④ 할머니, 짐 좀 들어드릴까요?

1) ②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3)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4)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5)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6)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7) ②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8) ② '새로'는 '지금까지 있는 적이 없이 처음으로'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었다.

[오답해설]

①③④는 명사 '사이'의 준말인 '새'이다.

명사 '새'

1. '사이'1(1. 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의 준말.

¶사람들 새로 친구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2. '사이'1(2. 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의 준말.

¶그녀는 그가 없는 새에 왔다 갔다 보다.

3. '사이'1(3. 어떤 일에 들이는 시간적인 여유나 거름)의 준말.

¶너무 바빠서 설 새도 없다.

4. '사이'1(4. 서로 맺은 관계)의 준말.

9) ③

[오답해설]

①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다'의 주체를 '-시-'로 높인다. 가능성을 표현하는 의존명사 '수'를 '있으시다'로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

② → 여기 오시는 한분 한분께서 필요하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찾아 가십시오.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 일률적으로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용언에도 '-시-'를 넣을 수 있다.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고 모든 용언에 '-시-'를 넣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도 않기 때문이다.

④ → 제가 드린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말씀'을 사용한다.

10) ①

① ㄱ은 중의문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지배하는지 목적이냐 누락된 문장이다.

[오답해설]

④ '일대일'은 '양쪽이 같은 비율이나 같은 권리로 상대함'의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11) ② (ㄴ)에서 '돼라'는 '되어라'의 '되어'가 축약된 형태이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오답해설]

(ㄱ) → 어디를 가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던지'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든지'는 선택을 표현하는 어미이다.

(ㄴ) → 지난번에 샀던 옷하고는 색상이 다르다.

'틀리다'는 동사로 '옳거나 사실 따위가 그르케 되거나 어긋나다.', '다르다'는 형용사로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12) ③

(다) 관형절의 수식을 받은 '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마) 일부 명사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이르는 의존 명사 '시'는 앞말과 띄어 쓴다. 합성이 등재된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등은 붙여 쓴다.

[오답해설]

(가) → 안V되다: 동사 '되다'를 부정하는 표현에서 금지의 의미는 띄어 쓴다.

(나) → 우리V시: 대명사 '우리'와 명사 '시'는 각각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비슷한 예로 '우리V집, 우리V말'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말(한국어)', '우리글(한글)'은 붙여 쓴다.

(라) → 그V외의: '그'와 '외'는 각각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합성어로 등재된 '그중', '그곳', '그분'은 붙여 쓴다.

(바) → 발생한V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지'는 붙여 쓴다.

→ 6개월V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인 '년'과 명사 '전'은 띄어 쓴다. 그리고 수

효를 나타내는 개월은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 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13) ②

㉠ → 경로당

한글맞춤법 제12항 두음법칙에 의하여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으므로, '노'를 '로'로 바꾸어 써야 한다.

㉡ → 내려다보이는

'내려다보다'가 합성어로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내려다보다'의 피동사인 '내려다보다'를 붙여 써야 한다.

[오답해설]

㉢ → 구로회

한글맞춤법 제12항 두음법칙에 의하여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으므로, '노'를 '로'로 바꾸어 써야 한다.

㉣ '하루하루'는 '하루'가 두 번 결합된 합성어로 명사와 부사의 쓰임이 있다.

㉤ → 뒤쪽

사이시옷은 뒤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표기할 수 없으므로 '뒤쪽'으로 써야 한다.

㉥ '칸'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1V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아라비아 숫자는 붙여 쓸 수 있다.

14) ④

받치다: 어떤 물건의 밑에 다른 물체를 올리거나 대다.

받히다: 충돌당하다, 떠받음을 당하다.

[오답해설]

① 걸잡다: (주로 '없다'와 함께 쓰여)붙들어 잡다.

걸잡다: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 그 사람의 행동은 걸잡을 수가 없다.

→ 차에 실려 있는 짐의 무게는 걸잡아 1톤은 돼 보였다.

② 늘이다: (길이)를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늘리다: 물체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

→ 등산로에 철봉을 박아 밭줄을 늘려 놓았지만 오르기가 힘들었다.

→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면 체중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③ 걸히다: '걸다'의 피동사, 거두어지다

거지다: 【...을】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 이제 구름이 많이 걸혀, 별이 빛나고 있었다.

→ 나는 냉수를 들이키자 마루를 거쳐 부엌방으로 들어갔다.

15) ④

방앗간, 콧병, 고양이과 모두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오답해설]

사이시옷 표기의 형태조건에서 한자어+한자어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예외)콧간, 뺨간, 찹간, 뺨수, 숫자,

① → 번지수(番地數)

② → 마구간(馬廐間)

③ → 수도세(水道稅)

16) ③

[오답해설]

① → 제스민

② → 세트

④ → 과일

17) ①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eo	o	u	eu	i	ae	e	oe	wi

18) ④ 사방으로 흩어져버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성어는 '풍지박산(風飛雹散)'이 아니라 '풍비박산(風飛雹散)'이다.

[오답해설]

①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② 건곤일척(乾坤一擲): 운명과 홍망을 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나 성패를 겨룸.

③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

19) ① '에코드라이브'를 바르게 다듬은 표현은 '친환경 운전'이다.

20) ③ '아저씨'는 호칭어의 기능이 친족어로 사용되었다.

[오답해설]

①②④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친족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